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 부서	IT·핀테크전략국	담당자 (직위, 성명)	강준모 수석조사역	연락처	02-3145-7419
요청대상 행위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을 망연계 솔루션(스트리밍)을 통해 내부망의 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NAC 등)으로부터 망연계 솔루션(외부에서 내부로 단방향 통신만 가능)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종 로그정보 등 침해 관련정보를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유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는 전산실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 유출·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통신망과 서비스번호(port)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악성코드 등 침해행위에 대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외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생성된 각종 침해 관련정보를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 특히, 침해 관련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침해위험 방지 통제로서 일반적으로 샌드박스 기반*의 악성코드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small>*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별도로 지정된 보호 영역에서 실행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내부 시스템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small> </div> <div>             ○ 다만, 내·외부망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의무를 반영한 망분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div>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